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음 11월 9일) 제170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도 문화재 활용사업, 전국 최다 선정

군산 야행 · 코레일 연계 야행 열차 · 정읍 생생문화재 · 남원 향교 등 4개

전북도가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문화재 활용사업' 17개 우수사업 중 전국 최다인 4개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4개 우수사업에는 군산 문화재야행, 정읍 생생문화재, 남원 향교문화재, 군산 코레일 연계 야행 열차사업 등이다.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유산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교육, 문화, 관광 콘텐츠로 적극 개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전북도는 10월에 선정한 '2017년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서도 전국 최다인 24개 사업, 국비 1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올해 첫 선을 보인 문화재야행은 지역 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지난 8월과 10월 전주·군산에서 운영된 문화재야행은 많은 관람객의 참여로 문화유산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산 야행은 '여름밤,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라는 주제로 지난 8월 13 ~ 14일 이틀 동안 7가지 정취인 7야(야로, 야사, 야화, 야설, 야경, 야식, 야숙)를 테마로 군산의 여름밤을 화려하게 수 놓았다.

또한, 군산야행과 코레일을 연계한 관광열차(1일) 및 야행열차(1박 2일)는 수도권 소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의미를 더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지역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문화콘텐츠로 활용, 역사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전통문화 관광자원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올해 생생문화재는 정읍 김동수가옥 등 4개사업에 프로그램 97회를 운영해 총 2만5,933명이 참여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에 큰 몫을 했다.

우수사업에 선정된 '김동수가옥의 건축이야기'는 고택한옥문화 체험과 김동수가옥의 향기를 찾아서 등 2개 프로그램을 8회 운영해 총 227명이 참여했다.

특히, 문화유산 활용을 통해 기존 관람중심에서 벗어나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중심으로 전환해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평가위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조선시대 선현의 덕을 기리고, 인재를 양성했던 향교와 서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문정신을 계승해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했다.

올해는 전주·임피·임실향교 및 무성서원 등 4개 향교서원을 대상으로 조선선비의 풍류와 인문정신이 갖는 의미를 되새겼다.

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최근 문화유산의 활용으로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톡톡히 한 몫을 함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도 활용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는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문화유산을 쉽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과 개인이 행복한 문화재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재계그룹 총수들 청문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계그룹 총수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내년 2월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전주·완주 시내버스가 내년 2월부터는 시민들의 실제교통수요와 이동패턴에 맞춘 새로운 노선을 따라 운행된다.

전주에 버스가 운행된지 6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학생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은 내년 새학기부터는 보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각 동별 주민설명회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시민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노선개편 수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2월 봄방학 기간 중 노선개편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122개 노선 중 56개 현행대로… 34개 부분개편

안행로 등 미운행지구에 처음으로 버스 운행

서부신시가지에 노선 확충

시는 노선개편 시행에 앞서 시민들을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달라진 노선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시 홈페이지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버스승강장 홍보물 부착 및 시내버스 차내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달라진 노선개편을 홍보키로 했다. 또, 노선개편 주요내용이 요약된 전단지와 시내버스 전체노선도가 안내된 소책자도 제작·배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2월 노선개편 시행 전부터 한 달 간 노선개편 관련 홍보 및 시민들의 전화민원에 응대할 수 있는 전담안내 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안내센터에서는 시 시민교통과 직원과 콜센터 직원들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해 근무하게 된다.

시는 노선개편 시행일부터 일주일간 노선개편 내용을 숙지한 직원을 주요 정류소에 배치하여, 시내버스 노선개편 내용 및 경유노선 등을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그동안 팔달로 중심의 남북 단일축으로 운행돼온 시내버스 노선을 △동산동(팔달로)~한옥마을 △동산동(동부대로)~아중리 △혁신도시~서부신시가지~중앙동 △전주역(백제대로)~평화동 △송천동~서부신시가지~평화동 △평화동~한옥마을~우아동 등 총 6개 축을 중심으로 다양화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완주 버스노선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은 교통카드 데이터와 버스통행인구, 통신사데이터 및 신용카드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유동인구 분석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립됐으며, 이후 시와 완주군은 각 시·군별 주민설명회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노선개편 수정안과 운행시기를 최종 확정했다.

노선개편 이후 현재 운행 중인 122개 노선 중 56개 노선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34개는 부분 개편된다. 또, 중복노선 30개가 폐지되는 대신 전주시내 9개 노선과 완주군 지간선 14개 노선이 각각 신설돼 총 116개 노선으로 감소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안행로와 신덕마을 등 기존 시내버스 미운행지구에 처음으로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서비스가 부족했던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하가지구 등 신규개발지역에는 시민들의 이동수요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이 확충된다. 또, 송천동과 동산동을 잇는 노선, 송천동과 전주대를 잇는 노선 등 기존에 없던 신설 노선구간이 생기게 됐다.

이를 통해, 평균배차 간격이 4.6분 감소하고 평균운행거리도 한 대당 12.1㎞ 줄어, 시내버스가 더 빨리 더 자주 다니고, 시민들의 버스 탑승 대기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노선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공단)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관리가 어려운 고혈압·당뇨를 동네의원 주치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은 의원 방문일 사이 기간에 환자가 주 1회 이상 본인이 직접 측정한 혈압·혈당 수치를 '건강iN' 사이트(http://hi.nhis.or.kr) 또는 'M건강보험'(모바일앱)에 입력,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주치의가 주기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SMS 또는 유선상담)하는 사업이다. /김영재 기자

박 대통령 "탄핵 각오하겠다… 국민 · 의원들께 죄송"

"헌재 과정 지켜볼 것"… 민주당 "아직도 대통령직 미련 못버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전했다.

세 사람의 회동은 55분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또 "탄핵이 가결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사태와 관련해 초래된 국정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여러분께, 의원님들께 두루두루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대해 "9일 탄핵절차는 헌법에 정한 절차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원내대표로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의원들 개개인의 양심과 자유 의사에 따라서 표결에 임하겠다"고 자유투표 방침을 박 대통령에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아직도 대통령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냐"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뉴시스